



올해 광주시립미술관은 '인상주의 명화전' 등 블록버스터 전시와 '조영남'전 등 불만한 전시를 대거 기획한다. 사진은 지난 2006년 담양 명지원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조영남씨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광주시립미술관, 올해도 전시 풍년

고흐·고갱 등 '인상주의 명화전'·독일 작가 '요셉보이스전'

탄생 100주년 '최승희전'·가수 겸 화가 '조영남전' 등 다채

고흐·고갱 등 인상과 대가와 가수 겸 화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조영남의 전시회를 광주에서 만난다.

또 춤으로 세계를 누빈 한국 최초의 현대무용가 최승희(1911~1969년)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녀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관련 전시회가 열리는 등 광주시립미술관이 마련하는 2011년 미술 기획이 다채롭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는 시립미술관이 올해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인상주의 명화전'(오는 7월8일~10월23일)과 '요셉보이스전'(")이다.

인상주의 전시는 고흐·고갱·세잔·마네·모네 등 중·고등학교생들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다.

요셉 보이스(Joseph Beuys·1921~1986년)도 현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작가다. 지난

1962년 독일 비스바덴에서 열린 '플럭서스 페스티벌'에서 백남준은 3대의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마지막에 도끼로 백남준의 피아노를 내리친 사람이 보이오였다.

시립미술관은 관람객들이 인상주의 대가의 작품과 독일의 국보급 작가인 보이오의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이들 작품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열리는 '인상파를 만나다'(2월25일~5월29일)전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상주의 회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광주시립미술관 내 어린이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그림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작품의 일부를 만져볼 수도 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모네의 '양산을 쓴 부인' 마네의 '피리부는 소년'의 주인공이 돼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나비의 꿈'(3월1일~5월15일)전은 최미연·박정용·김용만 등 국

내 젊은 작가 16명이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시립미술관의 봄 기획전이다. 장자의 '호접지몽'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젊은 작가들의 감성과 독특한 발상을 감상할 수 있다.

'최승희'(4월7일~6월19일)전은 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하정웅씨가 기증한 80여 점의 최승희 관련 사진과 자료를 선보이며, 불꽃처럼 살다간 천재 무용수의 일대기를 엿볼 수 있다.

시립미술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맞춰 마련하는 '아시아 미술'(11월10일~2012년2월12일) 전시에는 인도와 필리핀 대표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열린 베트남 전시에도 이어 아시아의 현대 미술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현대 미술 속의 '아시아의 정신'을 조명한 전시다.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리는 '조영남'(6월4일~7월17일)전도 기대되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



탄생 100주년을 맞은 최승희.

는 화투그림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조영남의 신작을 선보인다. 그는 1973년 첫 개인전을 가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그림을 그리며 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 시립미술관 서울 인사동 분관인 갤러리 라이프에서도 이조흠·서미라 등 지역 작가들의 개인전 등 30개의 크고·작은 전시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2-613-71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예총산하 10개 협회 네트워킹 강화 문화재단과 유기적관계 유지하겠다”

최 규 철 재선 광주예총 회장

“예총 산하에 있는 10개 협회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강화하면 지역 문화계가 훨씬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예총이 그 역할을 해야겠죠.”

8대 광주예총회장(임기 4년)에 선출된 최규철(57·전남대 교수) 회장은 “지난 4년 임기 동안에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예총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지난 14일 광주문화예총관에서 열린 광주예총 회장 선거에서 67표를 획득, 27표에 그친 정철 후보를 누르고 재임에 성공했다.

최 회장은 광주예총아트페스티벌과 한국예총 전국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굵직한 신규 행사를 치러낸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숙원 사업인 광주예총회관 건립과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기금 마련전을 개최하는 등 ‘물꼬’를 댔다는 데 의미를 뒀다.

“광주에서 국제 행사들이 많이 열리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서 관은 벌어지는데 정작 지역 예술인들은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등 지역 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회장은 광주문화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재단이 생기면서 예총의 입지가 좁아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문화발전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충분히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정치적인 의도 없이 순수하게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수 십억원이 소요되는 광주예총회관 건립이나 청소년공연예술단 창단 등 신규 사업들은 열악한 예총 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다소 버거운 분야이며 시민예술 대학 등 지속 사업 역시 환경태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 예산 확보가 언제나 불안했죠. 이번에 광주시 분예산에 몇 가지 사업들이



올라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회원과 협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각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최회장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회장 연임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 출신인 최회장은 광주 석산고와 전남대 미술교육과, 원광대 대학원(박사)을 나왔으며 광주예총문화대상, 한국예총예술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문지 ‘월간 고미술’ 창간

고미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월간지 ‘월간 고미술’이 최근 1월호를 내고 창간했다.

“월간 고미술’은 앞으로 국내외 고미술 관련 전문가를 필진으로 구성해 고미술과 관련된 전문 이론과 감정기법을 다룰 예정이다.

또 사학과,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재학과 등 고미술 관련 학과의 소식, 고미술품 경매업체, 고미술 전문 미술관과 갤러리, 고미술 애호가들의 동정을 소개한다.

창간호에는 정양모(전 국립박물관장) 최병식(경희대 미술대학 교수) 해문스님(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사무처장)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환 문화재 문제를 다룬 기사 등이 실렸다.

/연광뉴스

‘대동문화’ 1·2월호 출간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발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잡지 ‘대동문화’ 1·2월호(통권 62호)가 나왔다. 신년을 맞아 표지가 인물 사진으로 바뀌었다. 신설된 ‘표지이야기’의 첫 편은 성효상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감독이 장식했다.

이번 호의 기획 특집은 ‘3D 산업에 광주 미래 걸다’로 진호림(KCTV 광주방송 국장), 임학섭(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마케팅·기업유치팀장) 주정민(전남대 신방과 교수)씨 등의 원고가 실렸다.

또한 사진작가 강봉규씨와 명창 황연수, 올해로 백수를 맞는 시조시인 정소파 선생의 인터뷰가 실렸다.

초대석으로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단장의 신년 정책도 들어봤다. 문의 062-461-1500.

/김대성기자 bigkim@

KEITH HARING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2. 27까지

한정식 전문 레스토랑

아리랑하우스에서 맛있는 떡국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날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해 부족했던 점을 채워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ojang.com



영화에 빠지다

추운 겨울! 따뜻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1관	러브&드레스 (18세)
2관	세인트 클라우즈 (12세)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라스트갓파더(12세)
4관	라스트갓파더 (12세)
5관	심장이 뛰다 (15세)
6관	메가마인드(3D더빙) (전제)
7관	메가마인드(더빙) (전제)
8관	황해 (18세)/콜베리치의대모형(전제)
9관	헬로우 고스트 (12세)
10관	시즌오브더 위치 (15세)

하남점

1관	메가마인드(전제)/헬로우고스트(12세)
2관	헬로우 고스트 (12세)
3관	라스트갓파더 (12세)
4관	메가마인드(전제)/세미의어드벤처(전제)
5관	황해 (18세)
6관	러브&드레스(18세)/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7관	심장이 뛰다(15세)
8관	헬로우고스트(12세)/콜베리치의대모형(전제)
9관	라스트갓파더 (12세)
10관	시즌오브더 위치 (15세)

조조 영화원할 아떼세요? /호남최대주자장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신작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1관	시즌오브더 위치 (15세) 최고급관
2관	러브앤드레스 (18세)
3관	세인트 클라우즈 (12세)/러브앤드레스 (18세)
4관	헬로우 고스트 (12세)
5관	메가마인드 (전제)/심장이 뛰다(15세)
6관	황해 (18세)
7관	콜베리치의대모형 (12세) / 헬로우 고스트 (12세)
8관	라스트갓파더 (12세)
9관	심장이 뛰다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원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cinus

1관	시즌오브더 위치:마녀호송단 (15세)
2관	심장이 뛰다(15세)
3관	라스트갓파더 (12세)/황해(18세)
4관	메가마인드(3D더빙) (전제)
5관	메가마인드 (전제)
6관	세인트 클라우즈(12세)
7관	러브&드레스 (18세)
8관	헬로우 고스트 (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

상당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구. 런던악국사거리
☎ 1544 - 0600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